

# 50

Seoul Archdiocese Labor Pastoral  
50 Anniversary

# 50

Seoul Archdiocese Labor Pastoral  
50 Anniversary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50

Seoul Archdiocese Labor Pastoral  
50 Anniversary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분석·평가하여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며,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연구함으로써  
노동의 결실인 땀의 소중함을  
함께 깨우치고자 노력하고,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비정규직노동자·산재환자·이주노동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창세 3,19)

“노동자 한 사람은 온 세상의 금보다 더 소중하다.”(조셉 카다인 추기경)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 | 설립배경과 과정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도시빈민과, 노동계 안에서 교회의 역할과 활동을 연구할 목적으로 1971년 3월 24일에 ‘도시산업사목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습니다. 1972년 10월 18일에 연구모임보다는 적극적인 사목활동과 현장활동을 지향하기 위하여 ‘도시산업사목위원회’로 개칭하였고, 다시 1980년 6월에 ‘노동사목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2001년 5월에 보문동에 노동사목회관을 건립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까르딘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어린이사도직과 같은 사도 직단체들과 산재사목, 이주노동자상담실 등 서울대교구 내의 모든 노동사목 단체를 노동사목회관에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2002년 9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을 국가·민족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목적으로 배려하고, 2007년 2월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개원하여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사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 설립목적 |

- 가톨릭노동장년회, 가톨릭노동청년회(까르단청년회), 국제어린이사도직과 같은 사도직을 확장하고 노동사목위원회 산하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합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각종 사회회칙을 연구하고 그 정신을 확산시킵니다(신학생, 수도자, 사도직단체 연수교육).
- 가톨릭사도직들과 노동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회의 대응책을 식별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을 사목적으로 배려하여 고충상담과 국가별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힘씁니다.

## ■ 일러두기

- 1 문서로 기록된 자료를 주 자료로 하고, 기록이 없을 경우 증언이나 사진, 영상물(映像物) 등을 보조자료로 사용한다.
- 2 표기는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 1. 19.)에 의거한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 3 외래어 표기는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1995. 3. 16.)에 의거한 ‘외래어 표기법’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표기원칙’을 따른다. 다만, 고유명사 가운데 개인이나 단체가 고수하는 명칭은 그대로 살린다(예 : 폰벤투알 프란치스코회,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등).
- 4 이 책은 역사서이므로 인물에 대한 경칭(敬稱)은 인용문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명을 표기할 때 최초는 자세히 표기하여 주고, 그 이후는 이름만 밝힌다. 예 : 박성중(朴成鍾, 프란치스코, 1925~1983) 신부→ 박성중 신부.
- 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역사이므로 기술범위는 서울대교구가 행한 노동사목에 한정된다. 다만, 한국 사회에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된 ‘강화도 심도직물 사태’와 문제해결에 서울대교구가 깊이 개입한 ‘동일 방직사태’ 등은 예외로 한다.
- 6 서울대교구에 소속된 신자 개인이나 집단이 서울대교구 내에서 환경사도직을 실천하였더라도 교회로부터 인준 받지 않은 개인과 단체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천주교 전래가 한국사에 남긴 족적은 뚜렷합니다. 구습의 낡은 틀에 허덕이던 백성들 삶에 희망으로서 구원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평등, 과학 등 실질적 합리추구에 기여한 바는 실로 민족사의 전기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신심단체와 더불어 처음부터 가톨릭 액션 단체가 함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계명을 충실하게 실행하여 왔고, 사람들은 가톨릭 액션 단체의 역할을 지칭하여 특수사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마침내 10여 개의 특수사목 부서를 통합하여 서울대교구에 사회사목 전담주교를 두게 된 배경이 됩니다. 사회사목부 소속의 모든 부서들은 나름대로 한국사회에 천주교의 토착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산업화 과정에서 선도역할을 담당한 노동사목의 기여도는 경탄할 만합니다. 한때는 세계적 추세에 영향을 받아 성장통이라 할 일시적 방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적 성장과는 다르게 내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앞으로 말아야 할 역할은 막중하기만 합니다.

『노동사목 5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심기일전 매진을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김윤희 루카 주교

✦ 김윤희



한국 근대사에서 천주교의 사회적 역할은 소극적이었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전혀 무근하다고만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천주교가 이바지한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를 통합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던 역동적 역할이 민족사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한국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 근저에는 노동사목의 실질적 기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하고 있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노동사목의 역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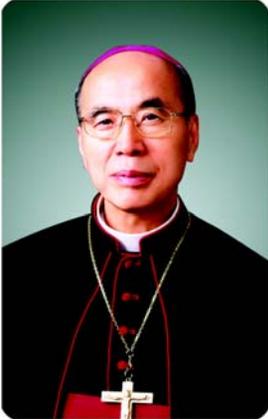
돌아보면, 천주교가 노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개입한 사건은 우연이나 일부 선각자의 혜안이 아니라, 천주교의 고유 전통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손수 일 하였고, 신약의 그리스도 역시 목수이셨으며, 열두 제자 역시 하나같이 육체노동자였습니다. 세계종교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나아가 ‘일과 기도’를 회현으로 하고 있는 중세수도원의 전통과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라는 사회 회칙의 전통은 천주교 고유의 바탕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사목은 우연의 결과이거나 천주교의 행운이 아니라, 필요의 소치요 전통에서 비롯된 혜택이었습니다. 사회와 교회의 교량으로서 노동사목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걸으려는 선진사회에 진입한 것처럼 비취지지만 속으로는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에서 갈수록 노동사목의 역할은 막중하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사목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합니다.

2008년 10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설립자 조셉 카다인 추기경님께서 노기남 대주교님 사무실에서 박성종 신부님과 함께 첫 번째 회원들의 활동을 인정하신 이래 한국가톨릭교회는 노동계의 여러 가지 활동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의 노동계 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는 교회가 그 시대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여 준 강한 동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교회는 그 시대 상황에서 드러나는 노동을 둘러싼 삶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힌 여러 회칙들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회칙들은 비단 그 시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늘 살아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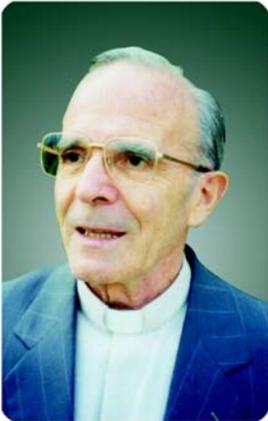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의 역사책자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한국교회가 노동자들과 노동계에 관심을 보여 준 사실이 이 책에 부분적이거나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 부족하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사목 활동에 나름대로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쁨과 고통을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동사목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도 이 기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제대로 읽어내고, 적절히 응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최창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노동사목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1950년대에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곧 이어 대전교구까지 파급되었을 때 저는 이들의 지도신부로 이들과 함께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숭고한 가치를 재확인하였으며, 노동자와 노동현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이어 민주화를 위하여 온 나라가 몸부림치던 1970~1980년대에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과 환경을 복음화하는 과정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비롯한 신자노동자들이 위정자와 업주, 심지어는 직장동료와 같은 신자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박해를 받을 때 저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주교로서 이들의 아픔의 참된 의미에 깊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으며, 거짓 역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짧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던 이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겸손과 진실을 바탕으로 요란하지 않게 자신과 노동계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의 투신과 희생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노동계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한 알의 소금과 작은 촛불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국내노동자를 위한 사목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사목과 결혼이민여성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 대한 사목까지 지평을 확대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바라보는 이 노사제의 마음은 흐뭇하고 이들의 미래를 희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노동사목 50주년과 이 책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10월 5일

천주교 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노동사목 50년사』 간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0년대 초 보좌신부로 발령 받아 본당의 가톨릭노동청년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때에 맺었던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순수한 신앙심과 진리에 목말라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순수한 신앙의 차원에서 신심과 영성을 복돋기 위해 교회는 노동사목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차원의 현안해결은 우선 당해조직의 자체적 결단에 의존해야 합니다(사목헌장 62항). 따라서 노동권의 확보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기능인 노동조합의 영역에 속합니다.

지난날 교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었기에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자기보호능력을 갖추었기에 독자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윤리지침인 ‘보조성의 원리’를 따른 결정입니다.

교회적 영성과 사회적 현안이 뒤섞여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혼란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종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사목 50년사』 간행을 준비하면서 정리의 핵심적 실마리는 가닥을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간행을 준비하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0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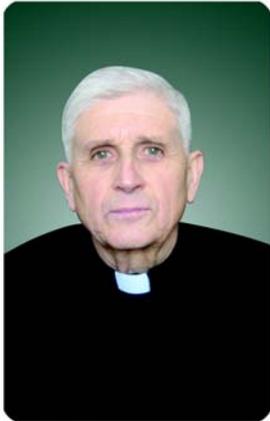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주님과 함께

염수정

총대리 염수정 주교



1998년부터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하고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의 모든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일과 새로운 위원장님이 순조롭게 취임하여야 하겠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용동진(바오로) 신부님과 제가 종로에 쌓여 있던 모든 묵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때 새 위원장이셨던 용 신부님이 노동사목위원회의 서류들만이 아니라, 노동사목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의 기록과 서류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전작업은 언제나 어렵고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치 짐을 가득 실은 제트기를 어려운 상황에서 착륙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전작업을 하는 동안 용 신부님과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 이에 대한 역사를 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성당에서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는 중에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깨달은 것들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시작하던 초기의 몇 해(1958~1968) 동안은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각되던 한국의 노동계급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참가한 첫 번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초기에는 당시에 일어나던 사건과 도전들에 대처하면서 든든한 기초를 닦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식의 견해로 그 당시의 일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첫 번째 회원들은 카다인 추기경(Cardinal Cardijn)의 방법론의 기초를 배우는 일과, 당시의 도전들에 대응하는 일에 아주 숙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의 아주 독특하고도 영구적인 특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노동사목활동의 초기 개척자들이신 그분들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첫 번째 회원들은 당시 지도신부님들과 함께 가톨릭노동청년회 방법론의 정신과 원칙이 기록된 아주 간단하고도 읽기 쉬운 소책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소책자들은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복음정신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첫 번째 회원들은 한국의 일반노동자 청년들 전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사회개혁을 초래하고 교구들과 본당들에 활기를 불어넣은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은 항상 변화하는 노동환경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968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0주년 기념행사를 도림동성당에서 거행했을 때 저는 그 곳의 보좌신부였습니다. 서울과 전국각지에서 모인 젊은 노동자들이 도림동성당에서 3일간 축제를 지낸 다음 명동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강화섬도적물 사건, ‘녕마주이들’(개미마을)을 위한 활동에서 얻어낸 것들과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울 주변에는 많은 공장들이 생겨나서 전국의 대도시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기에 구로공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림동성당은 한국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심장지대인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림동성당에서는 주변을 둘러싼 영등포 공장들의 굴뚝연기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한국의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독재주의와 함께 더욱 속력을 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적인 발전보다는 물질적, 경제적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노동사목 활동은 인간의 권리와 노동의 존엄성에 관계된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는 몇 해 동안 교회는 자주 노동자들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곤 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는 이미 80년 전에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노동조합이나 다른 조직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박영기 교수와 예수회의 바실 프라이스 신

부님(Fr. Basil Price, S.J.)이 설립하신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Labor Management Institute)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노동조합지도자들,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김말룡 선생, 손창희 교수 그리고 다른 뛰어난 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는 기대와 좌절을 동시에 느끼는 시대였습니다. 좌절을 느낀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군사독재가 주도하는 물질주의에 간혀버린 것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자유를 강렬히 원하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또한 이데올로기가 한국과 세계 다른 곳에서도 극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노동사목활동의 핵심가치들을 찢은 쟁점이었습니다.

1988년에 한국은 올림픽을 주최하는 행운을 누렸고, 민주주의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올림픽은 온 세계에 현대화된 남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1988년의 올림픽은 또한 한국의 노동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생기게 했습니다. 올림픽을 보러 왔던 아시아 방문객들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일을 하려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사목활동은 곧 이주노동자들이 흘러들어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동사목활동의 이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향한 강력한 물결이 동시에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노동조합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강력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노동사목활동을 하던 가톨릭들은 대중들 속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의식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가 진전되면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한국의 경제·사회적인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삼천년기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20세기 동안 한국교회가 노동사목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른 노선을 가기 위해서는 보편교

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의 든든한 지도를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의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성강좌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가 독실한 신심 생활을 하는 것만큼 사회적으로도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였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감성으로 이런 문제들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계에 한국교회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조직에서 일하고 활동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노동과 노동계에 새롭고도 역동적이며 조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길을 인도했던 것은 가톨릭노동청년회였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어린이사도직은 이미 가톨릭 액션으로서, 사회환경사도직으로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함께 하였습니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3 참조).

오늘날 노동계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면하는 중요한 문제는 옛날 같은 사회계층의 구분이 사라졌고 중산층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부자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해서 노동계급 행동대원들이 지나칠 만큼 정도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서지고 뿔뿔이 흩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논쟁들은 복잡다단하고, 노동계의 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정표나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교회는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산업화된 세계를 위한 교리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과정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9세기 초에 벌써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풍요로운 사회회칙들과, 이 회칙들을 뒤따르는 가톨릭 액션들, 그리고 일찍이 산업화된 지역의 활동가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시도했던 저희의 작업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저희는 도저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 일들을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서울대교구 위주로 역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만 노동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면서 이룩한 것들, 그리고 교회의 참여가 노동하는 남녀들을 고무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참으로 복음과 교회의 사회교리에 성실했는지 아닌지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동선을 위하여 하나로 일치할 때만 교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개인적 그리고 단체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저희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읽고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사회교리가 윤곽을 잡아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인간과 노동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남 보기에 흉하지 않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이에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투쟁하기로 결심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저는 문서들을 모으고, 인터뷰를 하고, 이 책을 쓰는 일에 참여하신 전문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들께 감사합니다. 책임 집필자이신 박명진(시몬) 씨와 정열적으로 힘차게 지도해 주신 허윤진(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사목위원회를 설립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축사를 받고 싶었는데, 몹시 편찮으셔서 그 좋은 글을 받지 못하는 아쉬운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희 노동사목위원회를 사랑해 주신 김수환 추기경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 10월 5일

노동사목위원회 제1·3대 위원장

도요안 세례자 요안 신부

*John F. Trusolini, SDB*



사목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나오는 ‘인간구원의 봉사’(주교교령 35)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교회의 노동사목은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하여 자기 능력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2년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수녀 세미나에서 노동이란 한자를 사람 ‘人’을 넣어서 ‘노동(勞働)’으로 쓰자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일본이 바로 노동이란 한자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이유는 인간만이 노동을 하지, 동물들은 노동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의 사회회칙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라는 주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본사상 역시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 즉 인간의 존엄성이 중심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창설자 카다인 추기경님은 “청년 노동자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금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값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노동사목은 이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 능력과 인격의 품위를 높이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50년을 돌아보면 바로 세상은 인간을 위한 것보다 물질적 경제를 인간보다 더 우위에 놓으려 합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작업이 바로 노동사목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경제가 최고의 선인 양, 최고의 가치인 양 여기는 시대에 한 사람의 노동자의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노동사목입니다. 그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기조는 한 사람의 영혼보다 금(재물)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사목은 지금까지 활동해 왔듯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의 인간적 품위와 존엄성을 위해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50년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하는 노동사목이 이 땅의 노동하는 사람의 영혼이  
고귀한 사람으로, 고귀한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목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심  
으로 노동사목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노동사목위원회 제4대 위원장 · 옥수동성당 주임  
용동진 바오로 신부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reading "Paul" in a cursive script, followed by the Korean characters "용동진" and a stylized flourish.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계획한 『노동사목 50년사』를 예정대로 발간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동사목위원장에 취임하였을 때 노동사목에 관계된 자료들 가운데 이미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매우 많았고, 사실을 증언해 주실 선배신부님들께서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병석에 계시어 귀중한 자료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정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사목에 종사하셨던 선배신부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노동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한 이들의 결과들을 수집·정리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요안 신부님께서 1950년대 말에 한국에 오시어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노동사목에 종사하셨으므로 신부님께서 보관 중이신 각종 기록자료들과 증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틀을 삼고, 당시 교회의 노동관련 활동이 구체화하기까지 시대적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노동환경에서 중요사건들은 무엇이고, 교회의 활동들이 교회의 사회교리에 부합되고 시대의 징표에 부응하는 것이었는지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회가 노동현장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준비하여야 할 전망까지 종합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회가 노동사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노동현장에서 자신과 이웃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분들, 동반하셨던 수녀님들의 문헌자료와 증언들을 찾아모으고, 도요안 신부님과 당시 사목하셨던 신부님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요안 신부님과 저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나, 많은 자료들이 상실되고 증언들이 서로 엇갈려 기대한 만큼 훌륭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은 다행히 노동사목에 헌신하신 선배신부님들과 주교님들께서 감수하시면서 채워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노동사목 50년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노동사목에 평생에 헌신하신 선배신부님들과, 노동현장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도직 회원들과 동반수녀님들께서 행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그분들의 겸손함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드

러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남은 자료들 찾아내어 그동안 미처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계속 보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을 가상히 보시어 숨어 있는 자료들을 찾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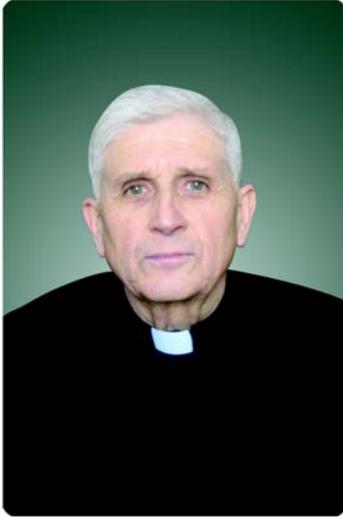
저희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장년회·어린이사도직과 산재사목을 계속 수행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이주사목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을 늘 지켜보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적극 동참하시어 격려와 함께 질책과 충고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선배신부님들과 동반수녀님들, 사도직 회원들,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느라 고생한 직원들과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집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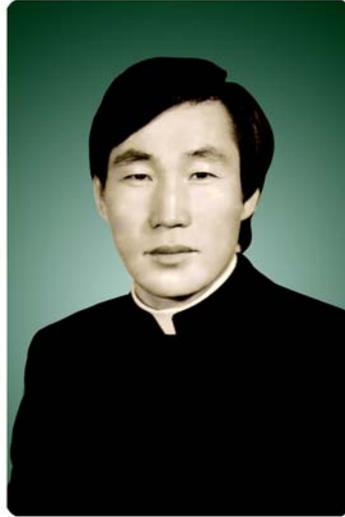
2008년 10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안드레아 신부





제1대, 제2대 직무대행, 제3대  
도요안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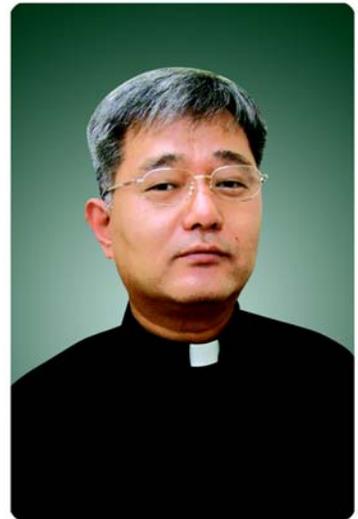
제2대 이용유 신부



제2대 직무대행  
구요비 신부



제4대 용동진 신부



제5대 허윤진 신부

# CONTENTS

일러두기  
발간사  
격려사  
축사  
인사말  
역대 위원장  
노동사목위원회의 과거·현재·미래 : 주교 간담회

## 제1장 — 가톨릭노동청년회 중심의 노동참여(1970년까지)

### 제1절 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 이전

1. 복음전래와 신앙공동체 형성 · 56
2. 신앙자유와 교회의 산업활동
  - 1) 개항기의 신앙자유 · 58
  - 2) 개항기 교회의 산업지원 · 59
  - 3) 수도회 초청 · 61
3. 일제시대의 정치·경제·노동상황
  - 1) 일제식민지배와 민족독립운동 · 63
  - 2) 일제식민지배와 자본주의 형성 · 64
  - 3) 일제식민지시대 노동운동 · 66
  - 4) 일제식민지시대 노동법제 · 67
4. 일제시대 교회와 산업
  - 1) 신자들의 가난 · 67
  - 2) 실업학교 설립과 운영 · 68
  - 3) 노동자 중심 성당 · 70
  - 4) 일제시대 교회의 노동관 · 71
5. 해방이후 시대상황
  - 1) 극심한 정치혼란 · 72
  - 2) 한국 자본주의의 성립 · 73
  - 3) 해방 이후의 노동운동 · 75
  - 4) 해방 이후의 노동입법 · 77
6. 해방 이후의 교회와 노동문제

- 1) 해방정국의 혼란과 교회 • 78
- 2) 노동과 교회 • 80
- 3) 한국전쟁과 교회의 재건노력 • 82
- 4) 노동관련 수도회 진출 • 83

### 제2절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1958~1962년)

1.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주변환경 • 85
2.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 • 88
3. 최초의 활동과 섹션 확대 • 92
4. 방지거반 활동 • 95
5. 교구조직과 활동강화 • 98
6. 교육과 조직심화 • 101
7. 소년부 신설과 활동의 다변화 • 103
8. 전국조직과 국제기구 가입 • 105

### 제3절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착

1. 시대상황
  - 1) 군사정권 등장 • 110
  - 2) 1960년대 경제와 노동시장 • 111
  - 3) 1960년대 노동운동 • 113
  - 4) 제3공화국 초기의 노동입법 • 115
2. 정세불안과 교회의 대변혁 • 116
3. 보리싹식당 • 117
4. 노동에 대한 자각과 환경개선 • 120
5.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화와 확산
  - 1) 가톨릭노동장년회 설립과 활동 • 121
    - ① 상부상조
    - ② 생활의 합리화
    - ③ 노동조합교육활동
    - ④ 주택조합활동
    - ⑤ 약혼자교실 개설
    - ⑥ 전국연합회 결성

- 2) 가톨릭농민회 분할 • 127
- 3) 이민정책 • 128
- 4) 해외파견 노동자 • 129
- 6. 우리 사회의 신조 • 130

제4절 교회의 노동참여의 전기

- 1. 심도직물사태와 교회의 개입
  - 1) 사건의 발단 • 132
  - 2) 교회의 개입 • 139
  - 3) 사건의 마무리 • 143
- 2. 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제10주년 기념행사 • 144
- 3. 교회일치운동 • 146

## 제2장 — 노동사목위원회의 태동(1970~1979년)

제1절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여건

- 1. 유신정치의 기나긴 질곡 • 152
- 2. 파행적인 경제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
  - 1)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의 성장 • 153
  - 2) 고도성장과 노동시장의 확대 • 155
- 3. 목숨을 담보하는 노동운동 • 156
- 4. 규제로 얼룩진 노동법제 • 158

제2절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출범과 전개

- 1. 1970년대 한국교회 • 160
- 2.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설립 • 161
- 3. 주교단 사목교서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 • 163
- 4. 참여범위 확대와 명칭변경 • 165
- 5. 정기총회
  - 1) 1973년 정기총회 • 168
  - 2) 1974년 정기총회 • 169

- 3) 1975년 이후의 정기총회 • 170
- 6. 개신교와 협조 그리고 갈등 • 171

### 제3절 사제와 신학생 양성

- 1. 산업사목연수회와 노동사목 실습
  - 1) 부제학교 • 174
  - 2) 신학생 산업사목연수회 • 175
- 2. 프라도사제회 회원양성 • 177

### 제4절 수도자 양성과 활동참여

- 1. 버스 안내원들을 위한 사업과 세미나 개최 • 178
- 2.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와 이향노동자교육센터 • 181
- 3. 성신회 설립과 프라도수녀회 한국진출 • 181

### 제5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 1. 남·북부연합회 분리와 적극활동 • 183
- 2.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참여와 활동
  - 1)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식기구 편입 • 184
  - 2) 활발한 교육활동 • 185
  - 3) 동부연합회 분리와 기숙사 설립 • 185
  - 4)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문제 • 187
- 3. 노사문제 적극개입
  -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189
    - ①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과 교회의 개입
    - ② 태안산업 박신정(모데스타) 사건
    - ③ 한영섬유 김진수(요셉) 사건
    - ④ (주)대한주철 천 요셉 사건
    - ⑤ 한국모방 사건
  - 2) 노동조합 설립 또는 역할회복 • 192
    - ① 영창실업 노동조합 설립
    - ② 태광산업 노동조합 설립
  - 3) 교육활동 • 194

4) 외국과 교류 · 195

#### 4. 유신체제의 시련과 험난한 투쟁

1) 한국노총의 변질과 갈등 · 196

2) 끝없는 탄압과 권익쟁취 · 199

① 한국모방(원풍모방) 노동조합의 회사 살리기와 지속적인 투쟁

② 삼립식품 사건

③ 서울통상 사건

④ 동일방직 사건

⑤ 인선사 노조결성, 유령노조와 투쟁

⑥ YH사건

⑦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3) 역할확인고 활동확대 · 208

#### 제6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재출범

1. 제한된 여건에서 활동재개 · 212

2. 국제회의 참여와 안목확장 · 213

3. 한일교류 · 214

#### 제7절 CO분과와 MCC분과 활동

1. CO분과 설립 · 215

2. 신학생들의 CO교육 · 216

3. 난곡지역의 CO활동

1) 노동자문제 해결 · 217

2) 의료활동 · 218

3) 어머니들의 모임(국수클럽) · 219

4) 개신교와 협조, CO분과 활동의 확대 · 220

4. MCC분과 활동 · 221

#### 제8절 노동문제상담소 설립 · 223

#### 제9절 요약과 평가 · 225

## 제3장 — 노동사목위원회의 성장(1980~1987년)

### 제1절 민주화에 대한 열망

1. 정치적 상황 • 230
2. 1980년대 경제상황
  - 1) 거시적 안정과 자율화 추구 • 231
  - 2) 노동시장의 성장과 구조변화 • 232
3. 1980년대 노동운동 • 233
4. 1980년대 노동입법 • 234

### 제2절 노동사목위원회의 정착

1. 도시산업사목위원회의 변화 • 236
2. 노동사목회관 건립
  - 1) 을지로 5가 이향노동자의 집 철거와 종로 노동사목회관 • 236
  - 2) 근로자센터 신설계획 • 238
3. 이용유 신부 선종과 위원회 변화 • 238
4. 200주년 기념사목회의 의안과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 • 242
5. 노동사목위원회의 역할확인 • 245
6. 노동절 행사 • 248
7. 종로 노동사목회관 입주 • 248
8. 주교회의 시노드 준비 • 250

### 제3절 사제와 신학생, 수도자 양성

1. 신학생 양성 • 251
2. 사제단모임 활성화 • 252
3. 외국교회의 관심 • 253
4. 수녀분과의 활성화 • 254

### 제4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1. 과도기 노동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
  - 1)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 258

- 2)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시련 • 259
- 3) (주)서통노동조합의 어용화 반대투쟁 • 260
- 4) 계속되는 원풍모방노동조합 탄압 • 262
- 5) 청계피복노동조합 강제해산과 합법성 쟁취투쟁 • 264
- 6) 콘트롤데이타 사건 • 267
- 7) 블랙리스트 철폐운동 • 268
- 8) 대우어패럴사건과 구로노동자동맹파업 • 270
- 9) 노동법 개정노력 • 271
- 2.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방향 재확인
  - 1)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열 • 272
  - 2) 린츠선언 • 273
  - 3) 바티칸과 관계악화 • 274
  - 4) 새로운 조직을 위한 모색과 성찰 • 275
  - 5)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 발족 • 277
  - 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준 영향 • 278
- 3.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 279
- 4. 기본활동과 양성훈련 • 280

## 제5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성장

- 1.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체제정비
  - 1) 팀 확장 • 282
  - 2) 팀 회합 순서와 회칙 • 282
- 2. 본격적인 활동전개
  - 1) 피정 • 283
  - 2) 일반회 • 284
  - 3) 수련회 • 285
  - 4) 총회 • 285
- 3. 외국회원들과 연대, 교류
  - 1)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와 대화 • 286
  - 2) 국제총회 참가와 세미나 • 287
  - 3) 제3차 한일교류 • 287
  - 4)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MMTC) 간부 방한 • 288

4. 가톨릭노동장년회 홍보 • 289

제6절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1. 상담활동 • 290
2. 교육 • 294
3. 노동사목 관계기관과 협조 • 295
4. 구로1동성당 노동문제상담실
  - 1) 상담실 개소 • 295
  - 2) 노동현황 분석 • 296

제7절 요약과 평가 • 298

## 제4장 — 노동사목위원회의 도약(1988~1997년)

제1절 민주화선언 이후의 시대상황

1. 정치의 민주화 • 304
2.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상황 • 304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305
4. 노동관계법제 • 307

제2절 노동사목위원회의 내실화

1. 노동관련 현안쟁점 학습·논의 • 309
2. 교회의 가르침 학습·논의 • 311
3.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 1) 민주화 촉구 건의문 • 312
  - 2) 노동법 개정요구 • 312
  - 3) 평화신문·평화방송 사태 • 312
  - 4) 철도·지하철(전기협) 파업사태 • 314
  - 5) 1995년 공노대 사태(명동성당 농성과 공권력 투입) • 316
  - 6) 1996년 공노대 사태(명동성당 점거 농성) • 316
  - 7)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 317

4. 노동사목위원회 담당사제 육성과 노동사목 방향 재점검 • 318
5. 교회의 가르침 연구
  - 1) 회칙 『사회적 관심』 분석과 연구 • 318
  - 2) 『노동헌장』 반포 100주년 기념행사 • 319
6. 교회의 노동참여 25년 정리와 재도약 • 321

#### 제3절 사제와 신학생 양성

1. 신학생 연수회
  - 1) 1988~1989년 연수회 • 325
  - 2) 1990년 연수회 • 325
  - 3) 1991~1992년 연수회 • 326
  - 4) 1993년 연수회 • 327
  - 5) 1994년 연수회 • 328
  - 6) 1996년 연수회 • 329
  - 7) 1997년 연수회 • 330

#### 제4절 수도자 양성과 활동 참여

1. 1988년 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장년회의 동반자 • 332
2. 1989년 성체대회 참여와 1990년 활동 • 334
3. 1991~1993년 활동 • 335
4. 1994~1997년 활동 • 336

#### 제5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1. 민주화와 노동여건 변화
  - 1) 도전 받는 가톨릭노동청년회 • 337
  - 2)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 339
    - ① 상계동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
    - ② 암사동 빠이룻트공장
    - ③ 묵동 크라운제과공장
    - ④ 구로공단 남성전기
    - ⑤ 등촌동 마이크로전자회사
    - ⑥ 독산동 무극사

⑦ 동아견직

⑧ 1987년 분규동기에 대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의 평가

## 2.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기반강화

1)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 · 344

2) 북부연합회 분할 · 346

3) 가톨릭노동청년회 재평가 · 347

① 1988년 노동문제와 교회의 입장

②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 재평가

③ 가톨릭노동청년회·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의 옹공·좌경성 재검토

4)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350

① 심포지엄

② 전국토론회와 기념대회

## 3. 상황변화와 적응

1) 상황변화 · 354

2) 조직확장 노력 · 355

① 기존활동 강화

② 평신도동반자·수녀·지도신부를 위한 가톨릭노동청년회 연수회

③ 가톨릭노동청년회 교재발간과 용어정리

## 4. 국제교류

1) 아시아지역 가톨릭노동청년회 훈련회 · 358

2) CIJOC 총회 · 358

3) 1994년 세계청년대회 · 359

4) 동아시아지역 방문보고 · 359

## 제6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활동

1. 1980년대 후반~1990년대 가톨릭노동장년회 현황 · 361

2. 남·북부 분할과 전국연합회 · 363

## 3. 국제교류

1) 국제총회 · 364

① 1988년 스페인 국제총회

② 1992년 리옹 국제총회

③ 1996년 포르투갈 국제총회

2) 동아시아 지역 교류 • 366

- ① 제6차 동아시아 지역 대표자 모임
- ② 1989년 동아시아 교류모임
- ③ 1994년 동아시아대표자회의
- ④ 가톨릭노동장년회 남아시아지역대회
- ⑤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 연합회와 타이완 가톨릭노동장년회 교류
- ⑥ 1996년 동아시아교류모임

제7절 국제어린이사도직

1. 국제어린이사도직(MIDADE-IMAC)의 활동과 소개 • 369
2. 미다드 워크숍(MIDADE Workshop) • 371
3. 국제어린이사도직에 대한 논란 • 373
4. 제9회 국제어린이사도직 국제총회 • 375

제8절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1. 명동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 1) 상담내용 분석 • 376
  - 2) 교육활동 • 377
  - 3) 김말롱 소장 이임과 노동사목위원회 산하기구 편입 • 377
  - 4) 김말롱 소장 추모미사와 회고 • 379
2. 구로본동노동문제상담소 • 379
3. 창동노동문제상담소 • 381
4. 구로3동노동문제상담소 • 382
5. 시흥동노동문제상담소 • 383
6. 까르딘청소년상담소 • 383
7. 상담실무자 모임 • 384

제9절 산재사목 준비

1. 산재사목 준비작업 • 386
2. 산재사목 전담실무자 • 387

## 제10절 이주사목

1.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활동 · 388
2. 산발적인 지원과 본격 사목활동 요청 · 389
3. 이주노동자상담소 개소
  - 1) 상담소 개소와 활동 · 391
  - 2) 본격적인 상담활동 · 392
  - 3) 관심과 배려 촉구 · 393
4. 본격적인 활동전개
  - 1) 주요업무와 대안제시 · 396
  - 2) 네팔노동자 농성사건 · 398
  - 3) 상담업무 확대 · 399
  - 4) 상담 이외의 활동 · 400
  - 5) '이주노동자 보호법' 개정요구 · 401
  - 6)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사태 · 401
5. 베다니아의 집 · 402
6.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 403

## 제11절 노동사목회관

1. 노동사목회관 교육 프로그램
  - 1) 노동법 강좌 · 405
  - 2) 사회교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 407
2. 노동사목회관의 대관(貸館) · 408
3. 노동사목회관의 역할문제
  - 1) 노동사목회관 계약서 · 408
  - 2) 노동사목회관 사용문제 · 409
  - 3) 노동사목회관 이전 · 410

## 제12절 요약과 평가 · 413

## 제5장 — 노동사목위원회의 전환(1998년 이후)

### 제1절 외환위기 이후의 시대상황

1. 정치상황 • 420
2. 외환위기 이후 경제 • 421
3.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운동 • 422
4.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제의 새로운 변화
  - 1) 국민의 정부(1998~2002년)의 노동입법 • 423
  - 2) 참여정부(2003~2008년)의 노동입법 • 424
  - 3) 노사관계 선진화입 • 425
  - 4) 비정규직 보호입법 • 426

### 제2절 노동사목위원회의 재도약

1. 종로시대의 변화
  - 1) 용동진 신부 위원장 취임과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 427
  - 2) 경제난국과 교회의 대처 • 428
  - 3) 평화의 집 운영 • 429
  - 4) 가정의 날 축제 • 430
  - 5) 실업극복지원사업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위탁시설 • 431
  - 6) 연구·출판 • 431
  - 7) 교육 활성화 • 433
  - 8) 외국과 교류 • 434
2. 노동자들의 대회년 행사 • 435
3. 보문동시대
  - 1) 노동사목회관 건립과 위원회 변화 • 437
  - 2) 최근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 438
  - 3) 후원기금 다변화 • 439
  - 4) 역할조정 • 440
  - 5) 전문위원 활동 • 441
    - ① 교회 내 노동조합 결성문제
    - ②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백서』
    - ③ 산재문제

- ④ 비정규직 문제
- ⑤ 노동사목 50년사

제3절 신학생, 수도자 양성

- 1. 신학생 양성
  - 1) 신학생 연수회 • 449
  - 2) 신학생 현장체험 • 450
- 2. 수도자 양성
  - 1) 현황변화 • 451
  - 2) 연수회와 현장체험 • 452

제4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 1. 남·북부연합회 통합 • 454
- 2. 현황변화 • 454
- 3. 2000년 대회년 준비 • 457
- 4. 외국과 교류 • 459

제5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활동

- 1. 1998~2007년 가톨릭노동장년회 현황변화 • 463
- 2. 가정의 날 행사 • 463
- 3. 국제교류
  - 1) 국제총회 • 464
  - 2) 동아시아 지역교류 • 465
  - 3) 국제임원 방문 • 467

제6절 어린이사도직 활동

- 1. 어린이사도직의 현황변화 • 468
- 2. 국제교류 • 470

제7절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 1. IMF 이후의 상담유형 변화 • 472
- 2. 남부노동문제상담소·구로평화의 집 • 474

제8절 산재사목의 성장

1. 주요활동 • 476
2. 외국의료재활시설 연수시찰
  - 1) 독일 의료재활시설 연수시찰 • 479
  - 2) 일본 의료재활시설 연수시찰 • 482

제9절 이주사목

1. 이주노동자상담실
  - 1) 1998년 주요활동 • 485
  - 2) 1999년 주요활동 • 488
  - 3) 2000년 주요활동 • 489
  - 4) 2001년 주요활동 • 490
  - 5) 2002년 주요활동 • 491
  - 6) 2003년 주요활동 • 492
  - 7) 2004년 주요활동 • 495
  - 8) 2005년 주요활동 • 496
  - 9) 2006년 주요활동 • 497
  - 10) 2007년 주요활동 • 498
2.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 • 500
3.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 501
4. 남미공동체
  - 1) 2001~2003년 활동 • 504
  - 2) 2004년 활동 • 505
  - 3) 2005~2006년 활동 • 506
  - 4) 2007년 활동 • 507
5. 가리봉 이주노동자의 집 • 508
6. 태국공동체 • 511
7. 베트남공동체 • 513
8. 몽골공동체 • 516
9. 베다니아의 집 • 518
10. 벗들의 집 • 519
11. 베들레헴 어린이집

- 1) 주요활동 · 522
- 2) 문제점과 해결방안 · 524
- 12.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525
- 13. 이주사목 평가와 전망 · 527

제10절 노동사목회관

- 1. 종로 노동사목회관 이용현황 · 530
- 2.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신축 · 531
- 3.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이용현황 · 532

제11절 요약과 평가 · 534

제6장 — 노동사목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 제1절 평가 · 540
- 제2절 전망 · 544

— 참고문헌 · 545

— 부록

부록1.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 554

부록2.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제1장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과 사명

- 제1절 설립배경과 설립과정 · 561

- 제2절 사명과 조직 · 563

제2장 주요사업 분야와 성과

- 제1절 주요사업 분야 · 567

제2절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 • 568

제3절 주요성과 • 569

**제3장 교회의 사회교리와 산업문제연구소**

제1절 교회의 사회교리와 산업문제연구소의 역할 • 581

제2절 교회의 사회교리관점에서의 역할 • 582

**제4장 교회 사회교리와 노동관계교육**

제1절 노동사목의 시대상황 변화 • 587

제2절 산업문제연구소의 폐소와 시사점 • 589

제3절 노동관계교육의 향후 과제 • 591

부록3. 노동사목 관련 주요 문헌자료 • 625

부록4. 역대 위원장과 위원, 단체임원, 동반자 • 801

부록5. 연표 • 820

— **찾아보기** • 880

## 노동사목위원회의 과거 · 현재 · 미래 : 주교 간담회

시 간 : 2008년 4월 9일(수) 13:30~15:10

장 소 : 노동사목회관 사제관

참석자 :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장), 두봉 주교(전 안동교구장), 염수정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허윤진 신부(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노동사목위원회 외국인사목 담당),

용동진 신부(서울대교구 옥수동성당 주임), 이상범 신부(노동사목회관장),

박명진 전문위원(노동사목위원회) 이상 8명

**허윤진 신부(이하 허 신부)** : 노동사목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모으면서, 예를 들면 가노청(JOC,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의록과 활동보고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첫째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둘째 사실을 증언해 주실 신부님들께서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또는 병석에 계시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료들을 제대로 모으려면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작업에 착수했고 작업의 완료시점을 2008년으로 잡았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50주년 기념의 의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 신부님께서 50년대 말 한국에 오시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현장에서 함께 하셨기에 도 신부님의 증언과 보관 중이신 각종 자료와 기록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틀을 삼고, 그 다음으로 당시 교회의 노동관계 활동은 어떠했고, 그러한 활동이 구체화되기까지 시대적 배경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노동환경 가운데 중요사건들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아가 교회의 활동들이 교회의 사회교리에 부합되었는지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침이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대에게 교회가 노동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준비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우선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인사들의 증언록을 수집하였고, 도 신부님께서 보관 중인 여러 자료들을 모았고, 당시 활동하셨던 신부님들과 관계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원고가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대로 초고 정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월과 앞으로 5월의 전문위원 모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고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5일, 5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날 주교님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지기로 처음에는

계획하였으나, 주교님들의 일정을 주일에 맞추어야 하고, 좌담회 진행의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 오늘로 미리 앞당겨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교님들께서 과거 교회의 노동관계 활동에서 보고 체험하신 내용과 앞으로 교회가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주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요안 신부(이하 도 신부)** : 주교님들께서는 우선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저희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진 씨는 교리사목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저술작업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현재 50주년 기념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신안 베로니카 씨는 오래된 저희 직원이고, 박효정 세라피나 씨는 이번 국제 여회장으로 추천되어 영어공부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진 씨가 만든 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80쪽 분량인 원고를 요약하여 주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 종로성당에 있었을 때 용 신부님과 제가 1983년 25주년 기념책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당시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주 부실한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가노청의 기원과 성장과정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등 처음 10년의 기록은 극히 소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도림동성당 보좌신부로 가톨릭 노동청년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던 도림동성당에서 직접 목격했던 광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표자들만 모였는데도 약 500명 정도가 함께 하였습니다.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박성중 신부님, 작고하신 이진엽 남자회장, 정양숙 마리아나 여자회장, 방 세실리아, 나 세실리아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 때 저는 젊은 신부로서 목격했던 프랑스의 가노청 40주년 기념행사와 비교해 보았고, 한국의 10주년 기념행사가 이렇듯 거창하게 개최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의 부실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읽어보시면 아마 저희들과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즉시 알아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노동사목위원회의 연혁을 요약할까 합니다. 1958년에 가노청이 시작되었으므로 금년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노동사목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71년에 서울대교구는 교구장께서 노동사목위원회를 설립하셨고, 이후 가톨릭 노동장년회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첫 번째 노동문제상담소가 명동에서 문을 엽니다. 1992년에는 외국인상담실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노동사목의 원칙은 우리가 다른 나라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같은 도움을 잊지 말고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관계로 세계교회의 조직은 항상 지역교회 조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범사례로 이주노동자사목은 역사도 짧은데 아주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

회에서 아직까지 종합적인 노동정책위원회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물론 바티칸에서 특별한 위원회가 조직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교회는 1891년에 『새로운 사태』 회칙을 비롯해서 거의 10여 개의 사회회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문제에 대한 경험과 대책 등을 다루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우선 역사적 체험을 정리할 필요를 절감하고 관계자들과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국교회만의 경험으로는 강화도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교님들께서 과거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해 느끼셨던 점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충고하실 점이나 지적하실 점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동사목위원회에 대한 경험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여기 계신 주교님들 모두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점입니다.

**두봉 주교(이하 두 주교) :** 대전 대흥동성당 보좌신부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서울 등에서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노청운동은 그 당시 확실히 순수하였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운동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성경을 공부했고, 관찰-판단-실천의 세 단계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참 신자들의 모임이었고, 따라서 아주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순수성을 유지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말단노동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운동권의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노동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시다만,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비교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에 같은 처지의 이웃으로 만나서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던 순수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도 방직공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예수님의 손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들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조금 색다른 활동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녀마주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가출청소년들이었는데, 소위 왕초들이 그들을 조직적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 같은 데서 살며 돈벌이를 하지만, 모두 왕초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청년 세 명이 그들과 어울려 같이 살면서 설득하여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경찰계통에서 이러한 노력을 이어받아 그러한 애들을 보호·선도하는 등 참으로 밑바닥 운동이었고 순수한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동진 신부(이하 용 신부)** : 주교님으로 승품되신 후 김수환 추기경님 다음으로 가노청 총재주교님을 역임하셨죠?

**두 주교** :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용 신부님 계실 때였죠. 당시 전국 지도신부님은 고인이 되신 전 미카엘 신부님이셨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요새 가노청 운동에 노조운동이나 불순한 운동 등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총재를 맡고 있던 시절에는 순수한 운동이었다고 기억됩니다. 물론 전혀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때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다운 노동조합운동이 불가능하였기에 교회의 가노청을 통해 그러한 욕구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랑거리의 못됩니다만, 교회가 참다운 노동운동에 앞장서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떳떳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전 신부님이 책자, 만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운동에 적극적이셨기에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습니다.

**최창무 대주교(이하 최 대주교)** :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 점은 앞으로 기념집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기념집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점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연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편집상 도움이 될 사항입니다. 1962년에 한국교회가 자치교구로 설정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그냥 전국차원으로 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사목 연표>라고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세로로 네 칸 정도 나누어서, 맨 위쪽에 있는 연표는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그 다음 칸은 일목요연하게 노 대주교님 때부터 아니면, 노 대주교님까지는 지도신부, 그리고 위에는 반드시 성직자 항목이 한 칸이 되면 천주교회의 교계제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칸에는 가노청 활동과 주요사건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세 번째 칸에는 조직과 현장 등이 요약되고, 넷째 칸에는 비고란으로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관련조직 활동 등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후반부터는 가노청에서 JAC가 분리 독립합니다. 따라서 가톨릭농민회 조직과 활동 등도 병기합니다.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노청이라고 했고 농업노동자 조직으로는 JAC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노청을 발판으로 농민조직이 발족되기에 가톨릭농민회의 연결고리로 비고란의 설정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원춘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비고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고 내용에 들어가서 참고할 수 있으므로 연표의 기능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교회의(CBCK)에 연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가외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표에 보면 처음 노 대주교님께서서는 교구장 개인적으로 노동사목위원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회의의 공식확인을 거쳐야 총재주

교로 공식화합니다. 해당주교님이나 추기경께서는 공식적으로 주교회의의 위임을 받아 노동사목의 총재주교로 취임합니다. 따라서 공식지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주교회의와 총재주교가 공식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동사목이 한국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전국조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성중 신부님께서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셔서 대신학교에서 교리교수학을 담당하셨는데, 가노청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소개하셨습니다. 그분 강의 내용에 매료되어 신학생들도 신학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하여 가노청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대로 당시의 세상을 어느 정도 알았기에 군대를 제대하고 독일에 유학하면서 거기서도 가노청을 했습니다. 신학생의 신분으로 팀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967년에 귀국하여 보니 명동보좌들이 자기 팀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원해서 가노청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두봉 주교님 말씀대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회합을 제대로 했습니다. 회합을 격주로 했는데 한번은 복음나눔, 한번은 생활나눔으로 아주 잘 이어졌습니다. 내가 맡았던 가노청은 재봉사에서 미용사 등 3가지 직업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미용실에 안 드나들 때인데 지도신부로 당시 내가 미용실에 들어가니 모두 깜짝 놀라 쳐다보아서 난처하기도 했습니다. 1년 뒤에 찾아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때는 정말 기쁘게 방문하는 등 노동사목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1969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노청 출신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었습니다. 보스코 형제와 연락이 되어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참으로 활동적이었고 마치 초기 공동체처럼 신나게 가노청 활동을 했습니다. 귀국 후 도 신부님과 만나고 1970년경부터 함께 신학생들 중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도 신부님께서 늘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주로 인천지역 직장에 들어가서 노동도 했습니다. 1970년 겨울방학에 4주 기간으로 현장을 찾아 체험하면서 매주 저녁에 팀 회합을 진행하면서 한 주 동안의 생활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김 추기경님과 도 신부님 소개로 정식으로 프라도회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와 이용유 두 학생을 프랑스에 파견하여 리용으로 갔는데, 한 분만 1975년에 서품을 받고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는 대신학교에 있었지만 신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으므로 항상 노동사목 전담사제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라도회의 주수옥 신부, 구요비 신부가 학생 때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매일 복음묵상을 함께 나누고 20분이라도 만나서 경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 신부님이 연락해서 외부에는 튼나는 대로 참여했습니다. 1982년부터는 사목자로서 이문동 가노청을 알았는데, 이 때는 벌써 성격이 틀렸어요. 거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사목할 때도

그들에게 노조결성을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 등 법적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였기에 가노청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어야만, 노동자들에게 힘이 생긴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하에 반정부 정치세력과 합하면서 신자 아닌 사람들이 가노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가 하나의 은신처되기도 했습니다. 나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오해도 살 수 있게 되었고, 10·26사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 같은 변화가 자리잡으면서 교회 가르침이 오히려 그들 운동권 인사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복음적으로 노동을 이해해야 교회의 영성이며 가노청 활동이라고 설득했지만, 지도자급으로 성장한 가노청 회원들 중에는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노청의 핵심은 영성이고 노동계층의 사도직이므로 만일 이 정신이 결여되면, 그냥 노조는 될지라도 천주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두 주교:** 제 경험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액션이었고 영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최 대주교:** 가톨릭 액션이었습니다. 하루 열네 시간씩 일하는 노동청년들이 열심히 모였고, 내가 화요일이 쉬는 날이었기에 화요일 저녁 8시 이후에 회합을 가졌습니다.

**용 신부:** 제가 전국회장을 할 때인데 그 때가 가장 침예하게 대립되고 분열되던 시기였습니다. 김문수 씨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김문수 씨가 가노청이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노청은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고, 김문수씨는 그렇게 가면 가노청은 망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운동권은 가장 격렬하고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하였고 가노청 역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주교:** 분열과 갈등의 시기였습니다.

**용 신부:** 성직자의 관계도 그 때 갈라지기 시작했죠.

**최 대주교:** 농민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평 고구마 사건’, ‘안동 오원춘 사건’ 등 농민회도 비슷한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치적 세력이 커지더니 독자적인 재단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갈수록 천주교 안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화하고 교회 공동체와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이 밖에서 더 잘하니까 교회 안의 노동운동은 매력을 잃었습니다. 용 신부님은 산 증인으로 계속 활동하셨지만, 나는 사목자로서 사명감 때문에 노동의 영성에 대한 논문을 썼고, 되도록 그 내용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의 팀 회합에 열중하였습니다.

**용 신부** : 네. ‘밀알회’입니다.

**최 대주교** : ‘밀알회’에도 위에서 말한 경향이 들어오면서 세속의 대학교에서 하는 MT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안 된다 하며 교회문헌부터 읽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용 신부** : 저도 ‘밀알회’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하고 부딪혔습니다.

**최 대주교** : 그게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니다. 신학생들이 진정 노동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사목전담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신학교에 있으니까 도 신부님께서도 협력했습니다.

**도 신부** : 제가 전국 지도신부였을 때 절실히 느꼈던 점은 노동 영성문제가 서서히 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단계에서부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용 신부** : 그 때가 린즈였습니다. 지난번 노동사목에 대해서 일본의 오쿠라 신부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노동영성에 대해서 신학교 연구과 논문을 썼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즉각 반응하기를 “노동에 무슨 영성이 있느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쿠라 신부에게 “신부님 맞으세요?”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선 가톨릭노동청년운동에서 노동의 영성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다고 하더군요.

**최 대주교** : 내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의구현사제단도 교회 영성 안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외국교회와 연대하는 것도 좋으나, 각 나라와 사회의 특성을 서로 고려했어야지 외국인 특권의식이 작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도 신부** : 관찰, 판단, 실천의 과정은 순수하게 과학적인 방법과 교회의 영성차원의 방법이 있는데, 사회과학적 시각에서만 보니까 세속적 방법만 남죠. 해방신학적 투쟁방법이라고 할까요?

**최 대주교** :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방법은 카다인 주기경계서 시작부터 제안하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자는 것이거든요.

**두 주교** : 일본에서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순수했습니다. 즉 영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용 신부** :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주교** : 시간이 가면서 현재와 같이 변했죠. 한국교회에서도 가노청 운동이 영성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 신부님들까지 관심도 없었고 영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허 신부** : 그와 같은 배경이 없이 현재만 볼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기되는 질문이 교회의 운동원칙인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즉 영성을 중요시했던 그 같은 운동원칙에서 벗어나 사회운동권의 방향으로 흘렀던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교회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오해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기편에 서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교회 간에, 제도 간에, 성직자 간에 대립으로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대주교** : 그게 바로 계급투쟁적인 의식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교회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용 신부** : 염 주교님께서는 일선 본당사목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염수정 주교(이하 염 주교)** : 1971년 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산동성당에서 사목할 때인데, 도 신부님께서 그때 돈보스꼬청소년센타에 계시면서 산업사목연구회를 만드셔서 연구회 신부님들과 첫 회합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영등포지역의 신부님들이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당시는 성당주변이 모두 공장들뿐이었습니다.

**용 신부** : 네, 경성방직 등 섬유공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염 주교** : 조금 가면 화창레스, 조금 더 가면 서울통상 가발 프라스모 등……. 중·고등학생들도 많았지만, 섬유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노청 조직이 남부지구, 북부지구 나중에 남부연합회와 북부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당산동에는 섹션이 있었어요. 팀보다 한 단계 위인 조직으로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통상 등의 소속 노동자들이 팀회원으로 회합을 가졌는데, 서울통상은 가발업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팀회합을 가지는 데, 충청도 출신이 대부분으로 오뚜기팀이라고 기억합니다. 노동시간이 보통 하루에 열다섯 시간에서 열일곱 시간이었고, 잔업을 하면 더 많은 일당을 받을 수 있기에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팀회합을 할 때에는 비슷한 처지였기에 각별한 우애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명이 팀회합을 하다가 회합도중에 좋아요 그 가운데서도 미사 드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충청도 유구 등에서 상경한 젊은이들로 파리의방전교회 태 신부님과 잘 알고 있었어요.

**두 주교** : 이향사목하시던 분으로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염 주교** : 그 젊은이들이 충청도 금사리성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주교** : 태 신부님께서 금사리성당에 계시었는데, 본당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났습니다.

**염 주교** : 태 신부님이 그 젊은이들을 만나러 공단으로 찾아와서 반갑게 만나고 이향사목을 하

시면서 추석 등 명절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합과 미사에도 자주 참석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더라도 방이 없어서 성당의 마당이나 화단 같은 데서 모여 회합하곤 하였습니다. 1972년에 찍은 사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나자렛팀이라고 팀선서를 했던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이 미사 때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열심한 신앙인들이었어요. 회합을 통해 노동자도 인간이다. 비록 15시간에서 17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성당에 오면 마음을 폭 놓았습니다.”라면서,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하고는 하였습니다. 박성종 신부님이 만드신 창조사업,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등의 내용인 노동교육 책자를 가지고 팀회합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본당 보좌신부였던 나는 주일학교 모임, 교사들 모임에도 들어갔고, 중·고등학교 학생모임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가노청 회합에도 들어갔는데, 나누었던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노동이 하느님 창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등이었습니다. 꼭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난 2월에 나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벌써 죽은 애들도 있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땐 나도 상당히 젊었지요. 그 애들의 자녀들이 벌써 견진 받은 애들도 있어요. 다시 당산동 시절로 돌아가서, 섹션 모임도 하고,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하는데, 유치원 강당이 꼭 차도록 그렇게 많이들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했고 서로들 참다운 인간관계에 굽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972년인가? 도 신부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가노청을 잠시 담당했는데 대한모방인가?

**도 신부 :** 한국모방이었죠.

**염 주교 :** 아! 한국모방이었습니다. 명동성당 저녁미사에 참석하러 간 거예요. 당시 명동보좌신부님은 장덕필 신부였는데, 성당에 들어갔더니 성당이 꽉 차서 기분은 좋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사보를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 전부 까맣게 보였습니다. 노조는 아니었지만, 가노청의 정신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당신부님께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지동진, 방용석 등이 그 당시 한국모방의 지도급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질 장소가 없으니까 성당 유치원을 빌려 쓴 것입니다. 여름에 모임을 가지다보니 점점 변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완전히 노조로 바뀌더라고요. 요새는 완전히 구별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고 정말 순수한 운동이었습니다.

**최 대주교** : 여기 배부된 자료 2쪽을 보면 1968년 10주년을 맞이했을 때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 내용이 문제가 있는데요. 연혁 다음 문건입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부분인데, 그래서 비고란을 두어 처리해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급격한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 역시 변화를 겪습니다. 강화사건만 보면 가노청 중심으로 해석되겠지만, 일선에서는 농민문제가 심각하여졌습니다. 가톨릭농민회가 결성되었거든요. 그리고 삼선개헌이 있었습니다. 1971년 김대중 사건 이후 산업구조가 바뀌고 유신이 나오고 대학에서는 서클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 때 가톨릭성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모임은 당시 일체의 학생모임이 금지되었지만, 성경공부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 주교** : 예, ‘집시법’에 의해 일체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최 대주교** : 따라서 가노청도 실제로 회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모임은 전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당한 사유로 은둔처가 마련되었고, 1974년 지 주교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의구현사제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회는 외면상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주교까지 감옥에 갇히는 독재정치에 항의하여 젊은 신부들이 ‘정의구현사제단’을 결성하였고, 한쪽은 주교가 구속될 정도로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여 소위 ‘구국사제단’이 생겼습니다. ‘구국사제단’에서는 성직자가 공산주의자로 욕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주교 내부 역시 사회·정치적 영향으로 부끄럽지만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교회내부에 ‘구국사제단’이니 ‘정의구현사제단’이니 하는 이견과 갈등이 생기고, 노동자들의 처지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이 전에는 가노청 회합에 참석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곤 했는데, 디스코장 등 교회 밖에서 모여 더 재미있어, 성당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신이 맑을 수 없지요. 회합하기 위해 모이면 ‘의식분자’로 보이고, 천주교회 자체도 빨갱이라고 하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의례히 노동운동은 빨갱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노청 모임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가톨릭학생회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때가 전환기였습니다. 유신은 정말 나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던 때였습니다. YH사건도 있었지만 가톨릭학생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등이 수난을 겪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농업정책은 공업화의 보호정책에 밀리고, 함평고구마사건 이후 오원춘사건을 마지막으로 순수한 농민운동은 막을 내립니다. 사실은 주교님들 말씀을 들으니 일선의 지도신부들도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

식분자들, 즉 빨갱이로 치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떳떳하게 모임을 가지지 못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 때 천주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여겨지던 ‘정의구현사제단’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와 5공들이어서면서 갈수록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치색깔을 띠며, 내부 비판세력을 자처하고 교계제도에 대하여도 신랄히 비판합니다. 마지막에는 주교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서울 신학교 안에 온 것입니다. 일반사회에서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처럼 교회 안에서 바로 그 모습대로 기득권 비판을 외치면서 교도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마치 반정부 투쟁과 같아요.

**용 신부** : 가노청의 경우 그때가 바로 메헬렌(Mechelen)에서 열린 임시세계총회였고, 이 모임에서 노선의 격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최 대주교** : 반드시 정당한 역사비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진정 그 시대적 상황과 사상적 흐름에 대해 성찰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국풍’이라는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합니다. 그 다음 여의도에서 연합예배를 가집니다. 천주교회도 이 때 큰 행사를 치룹니다. 정부로부터 도움과 협조로….

**용 신부** : 제가 메헬렌에서 열린 임시세계총회에 참석했을 때 가노청도 갈라졌습니다. CIJOC과 JOCI로 갈라선 결정적 계기는 자금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결국 돈의 검은 거래가 드러난 것이지요.

**최 대주교** : 정치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가노청 역시 C가 없어지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1968년경 유럽에는 소위 SDS라고 하는 학생운동과 학생폭동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 때 독일에 있었을 때인데 “호치민, 호치민, 마오태통, 마오태통” 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모택동과 호치민이 유럽대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반미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동운동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가노청 국제조직이 CIJOC과 JOCI로 갈라선 것도 바로 세계사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도 신부** : 용 신부님과 저는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1968년 제가 젊은 신부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1968년 카다인 추기경께서 서거하시고, 카다인이 키웠던 알렌브르크 몬시뇰이 가노청 지도신부로 계시다가, 로마의 평신도성소위원회가 생기면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1970년경 알렌브르크 몬시뇰은 로마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무렵 1968년쯤 젊은 신부가 가노청의 국제지도신부로 임명되었는데, 저와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친구가 가노청의 국제총무와 동거하고 결혼했습니다. 따라

서 국제 가노청이 혼란에 빠졌고, 1975년 린츠회의를 앞둔 시기의 국제 가노청 사정은 엉망이었습니다. 모택동파, 소련파 등 사분오열의 상태에서 지도신부마저 공석이었기에 린츠회의에서 노동의 영성이나 그리스도 신자라는 특성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봉 총재 주교님께서 ‘린츠문서’를 번역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주교 :** 린츠회의는 우리 사정과 너무 거리가 있었기에 한국의 가노청은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 신부 :** 주교님께서 린츠 기본원칙 선언을 번역하지 말도록 금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주교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 신부 :**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한국의 가노청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디만, 정병조 신부님과 다른 한 분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1983년 무렵에 번역하였습니다. 뒤에 1981년 벨기에 메헬렌에서 열린 임시세계총회에 가보니까 갈라진 이유가 밝혀지더군요. 원래 가노청 본부는 벨기에였고 그 곳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비밀서류가 자주 오가니까 세관원 한 분이 이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은 가노청 회원이었습니다. 압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교황청으로 보고되고, 이 사건이 갈라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최 대주교 :** 가노청 50년사를 발간하는 데는 전체교회 입장에서 정리해야 하고, 사목적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배경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계적 흐름을 언급했습니다.

**염 주교 :** 역사이니까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주교 :** 지금 가노청 국제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용 신부 :** 네,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 신부 :** 가노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노청의 주요기능은 모두 유럽에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처음에는 세력이 강했는데, 갈수록 약해졌고 지금은 다 없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CIJOC으로 합류했습니다. 아프리카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모두 CIJOC으로 넘어왔고, 남아메리카도 초기에는 큰 혼란에 빠졌는데, 브라질의 중심 가노청과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이 CIJOC으로 넘어왔고, 브라질의 소수 일부, 칠레, 콜롬비아는 JOCI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도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신자가 제일 많아서 필리핀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필리핀의 JOCI 노선 추종자들은 이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본당위주가 아니라, 공장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닐라 근처의 루손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와 민다나오지역의 가노청은 완전히 고립되었는데, 독자적으로 PCYCW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86년 CIJOC이 발족하자 즉각 CIJOC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시아지도신부로 자주 방문하는데, 주교님들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못하더군요. 인도 역시 필리핀과 같이 둘로 갈라졌는데, 이제는 JOCI 노선을 추종하는 가노청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JOCI, 싱가포르 JOCI가 남아 있지만, 그들도 모두 노동조합에 합류할 사람들이지 교회의 고유 가노청에 합류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 주교 :** 그러니까 가노청에서 교회의 영성을 모두 없애버린 채 JOCI라고 남아 있는 거군요.

**도 신부 :** 일본의 현황은 특기할 만합니다. CIJOC 노선의 운동을 지도할 신부님들은 모두 추방하였습니다. 파괴외방전교회 신부님들과 에드워드 신부님 등도 모두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만은 서서히 CIJOC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 신부 :** 일본 가노청은 JOCI로 걸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가끔 민주노총과 형식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신부 :** 현재 가노청 일본본부는 한국의 민노총의 숙소가 되어버렸지요. 결론적으로 아시아에서 인도, 필리핀, 한국 그리고 타이완에서 JOCI는 없어졌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회원의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늙어버렸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조직에 합류하지 않으므로 자연고사(自然枯死)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결국 한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등 모두 CIJOC으로 합류했습니다.

**박명진 위원(이하 박 위원) :** 최창무 대주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970년대부터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만 보고 판단하건대 지금도 노동사목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신교와 연대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산업선교회 등 개신교 목사님들과 제휴하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결국은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의로 제휴하여 복음정신에 입각하여 좋은 일을 하자고 시작합니다만, 우리는 가노청이라는 탄탄한 조직이 있고, 그 쪽은 목사님과 몇 명의 동조자만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들러리같이 비취지고 있습니다.

**최 대주교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WCC나 NCC 등 나름대로의 조직과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교리문제 일치운동이 있고, 생활과 실천에 있어 누구하고든 목적이 같고 옳은 것이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faith and order; life and work).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되면서 1960년 중반부터는 일치운동에 천주교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고통을 보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개신교 예배당에도 가면 안 되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일치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종교 간의 대화와 에

큐메니컬 운동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운동은 근본적으로 둘이 다른 것입니다. 개방적 개신교도들과 많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시위를 함께 벌였지만, 이는 일치운동보다 대화를 나누는 맥락에서 함께 추진됐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활동목적으로 가톨릭교회도 원조하였고, 개신교 교회도 원조하여 외부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함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지요. 이러한 관행이 정의구현사제단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개신교의 공인단체가 아닌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정의와 반독재 등 당시현안을 위해 함께 일을 했을 뿐이지 이용당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휴하자고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용당했다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면 이용당해야지요. 목적이 정당하면 제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하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이른바 정의구현사제단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하고, 지나치게 정치적 투쟁이라고 하지만 시대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들이 천주교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정의구현사제단이 가톨릭의 공식기구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옳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함께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노동사목위원회는 공인단체이지만, 비공인단체로 명칭에 가톨릭을 앞에 붙이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위원 :** 그런데 개신교 측에서 가노청 이름을 남용한 예가 많거든요.

**최 대주교 :** CIJOC과 JOCI 문제처럼 복잡한 사정이 공존합니다. 식별해야 할 뿐이지 악용될 때 그 즉시 어떻게 막을 수 있었습니까? 가능한 대로 예방해야지.

**허 신부 :** 질문의 요지는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연대의 명분으로 정당성의 문제는 제쳐놓고 이슈만 되면 함께 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그렇지 못할 것에는 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측에서는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최 대주교 :** 훌륭한 원칙입니다. 그럴 때는 그들과 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칭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유성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휴의 문제, 연대의 문제는 본래의 칸이 아니라 비고관이라는 칸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칸의 오른쪽 칸들과 왼쪽 칸들의 중요성과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 위원** : 마지막으로 ‘미다드(어린이 사도직)’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사목적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최 대주교** : 아! ‘미다드’ 그건 내가 서울대교구에 있었을 때 도입되어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 : 지금도 ‘어린이사도직’은 활동하고 있지만 논란이 있는데, 주일학교와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분명히 존재 이유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 대주교** : 어린이에 대한 신앙생활의 인도가 목적이라며, ‘미다드’이건 주일학교이건 사목적 현상의 형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주교** : 지금도 ‘미다드’가 있습니까?

**도 신부** : 이 신부님이 지도신부입니다.

**이상범 신부(이하 이 신부)** : 예. 인천에 5~6개 팀이 있고, 서울에는 20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그밖에 공주에도 한 팀이 있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2~3개 팀이 있습니다.

**최 대주교** : 현재 60~70%가 냉담 교우들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현재 20% 정도가 교회활동에 참여한다는 말인데, ‘미다드’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로 굳이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양성이 오히려 장려되어야 합니다. 복음선교의 일환으로 노동사목 입장에서 전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 신부** :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면 안 되고, 노동사목 쪽에서는 ‘미다드’를 하면 되지요.

**이 신부** : ‘미다드’가 주일학교의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최 대주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교구에 소공동체 운동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공동체의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소공동체가 기준이 되어 사목적회를 폐지하거나 반소공동체로 나눌 수 있습니까? 생활근거지와 구역의 형편에 따라 작은 공동체로서 대표가 있으면 충분하지 확실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허 신부** :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지역별로 사목이 필요한 요소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용 신부** : 분명히 사목대상과 사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 대주교** : 같은 서울대교구 안에서도 지역성격이 다른데, ‘미다드’가 더 적합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한편, 주일학교가 더 적합하고 덜 적합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사목자들이 판단할 사안이지 강요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 신부** : 긴 시간의 회의로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노동사목의 전망에 대해서 주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회의 어른들께서 교회의 노동문제 참여에 대한 신학적 배경과 사목적 비전이나 당부의 말씀이나 주의할 점, 그리고 앞으로 노동사목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활

동해야 할 문제나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두 주교** : 꼭 한 마디 해야 한다면, 노동영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기초로 삼아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주님의 행동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최 대주교** : 제가 30~40년 전 자문하였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우선 가노청이 탄생하던 때가 유럽에서는 산업화와 경제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가 바로 서구가 산업화되던 시기와 비슷했고, 따라서 가노청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했고 사명감 역시 투철했습니다. 그 당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산업노동자보다는 농업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우리의 형편에서 JAC가 더 절실할 때 가노청이 먼저 결성됐다는 점 정도일까요. 다음으로는 블루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사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발전은 했지만 노동조건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산업화 과정과 비슷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전의 가노청과 마찬가지로의 방법과 영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즉 제3, 4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사목 역시 새로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공장’이나 ‘노동’이라는 말 대신 ‘직장’이라는 표현이나 ‘직업’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영성’이라는 개념으로 사목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걸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OECD회원국까지 되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이 제일 길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되더군요. 거기에 지난 날 산업화 초기에 혹사당하던 것 못지 않게 IT 산업이 혹사시킨다고 하더군요. 12시간에서 1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노동도 문제이지만, 과거에는 장시간의 육체노동이라고 했어도 적당히 허리라도 펴 수 있었지만, 요즘은 컴퓨터의 완전 노예가 되어 혹사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로 전자게임 같은 것은 초등학교 학생 때 시작해 가지고 20대 초반이면 은퇴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사목은 ‘직장사목’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노동사목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의 JAC에 대한 절실성이 그 후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고, 이제는 IT 산업 종사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사목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노동조합은 화이트칼라라고 같은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 신부** : 노동의 개념이 아주 폭발적이었죠.

**최 대주교** : 아주 나빠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두 개념을 통합하여 적절한 노동사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좌주교가 되던 해에 서울대교구에서 소공동체를 주제로 전 교구 신부님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 연수회를 했는데, ‘소공동체’만 가지고 두 시간이나 토론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공동체’ 창시자라고 하는 오스카 하이머 신부가 ‘소공동체’와 ‘반’에 대한 문제를 물으니, 오히려 그게 왜 문제냐고 저에게 되물더라고요. ‘반’이나 ‘소공동체’나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문제라 했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성공적인 선교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노동사목도 가노청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임기가 끝났다고 보면 어떨까요?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답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목의 터전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노예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두 주교** : 지금이 오히려 더 많지요.

**최 대주교** : 그래서 직장사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허 신부** : 네, 직장사목부라고 있습니다.

**최 대주교** : 글썽 노동사목과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직장사목할 때 이미 지적했었습니다만, 가노청의 소명이 바로 그건데 직장사목부가 별도로 구성되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장 밖은 실업자이니까 실업자사목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정사목이 됩니까? 웃기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염 주교** :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노청이건 직장사목이건 대상은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60~70년대는 사실 일자리가 너무 없었죠. 요새는 그 때와 전혀 다른 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원하면 있는데, 눈높이를 내리면 정말 일할 데가 많은데도 이른바 3D업종이라고 거의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노동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러한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이 없다고 직장을 찾으면서... 요즈음 우스개 얘기로 제일 착실한 장학금은 부모님이 주는 장학금이라고 한다면서요. 실례를 들면 어떤 자매님이 본당신부님에게 와서 직업이 없으니까 노동을 해서 가족부양과 교육도 하여야 하는데, 정말 일거리가 없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 신부** :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염 주교** : 지난날, 6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특히 60~70년대 우리가 너무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고, 또 이용했고, 이렇게 쓴맛 단맛 다 보았고, 경험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정도(正道)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 대주교** : 참고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노동하는 인간』이 나온 게 『새로운 사태』 90주년 기념을 위해 나오거든요. 라틴어로는 ‘Laborem Exercens’거든요. 우리는 그냥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번역했지만 진정한 묘미를 살리는 ‘노동’이 무엇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실업사목이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자로 쓰면 ‘實業’과 ‘失業’이 구별되는데, 우리말로로는 똑같지요. 한때 ‘경제인회’를 ‘실업인회(實業人會)’라고 했는데, 현재는 ‘실업인회’가 ‘경제인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개 얘기로 ‘잃을’ ‘실(失)’자로 실업인데, 백수들도 실업인이 되지 않습니까? ‘노동사목’을 ‘실업사목’으로 바꾸면….

**도 신부** : 노인사목에 대해 허 신부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대주교** :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즉 일하는 존재.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노청은 개념만 옛것이 아니라, 외래어이니까 이제는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데, 이젠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명칭을 공모해도 좋고, 이번 50주년을 기해서 간판도 새로 쓰는 것이 어떨까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 신부** :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대로 모두 노동입니다.

**염 주교** : (『노동하는 인간』 책을 가리키며) 여기 오기 전에 어제 다시 읽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동해야만 인간답게 된다는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최 대주교** :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동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동해야 인간다운 것입니다.

**용 신부** : 제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일 때 몇 분 신부님들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무언가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혔습니다.

**최 대주교** : 『노동하는 인간』에서도 참고될 내용이 있고, 『사목현장』은 인간활동 전반을 다루고 있으니까 정치, 문화, 경제, 평화 거기에서 참조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도 신부** : 베네딕토 16세께서 이번 여름에 사회회칙을 발표하신다고 하셨지요?

**최 대주교** : 그러면 거기에서도 참고할 수 있겠군요. 회칙의 내용이 ‘희망’ 같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믿을 교리를 주제로 하신다는 말도 있어요. ‘사랑’은 지난번 이미 다루었으니. 참 ‘희망’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이 주제가 되리라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사회회칙의 대학자이시니까 한 번 고민해 보면 이번 50주년이 뜻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잉태하면 다음 50주년 때는 옥동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허 신부** : 멀리서 오셔서 장시간 저희들을 위해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신 주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세대와 일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나누면서 지난 날 어려웠던 시절 노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짐작되지만, 경제성장과 물적 혜택을 받고 있는 신세대의 어려움도 나름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해야 하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두 주교** : 감사합니다.

**허 신부** : 함께 해 주신 시간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